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생산돼 전국에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창 고구마 생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고창황토청정고구마 가공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고창황토고구마공장 착공

고구마 페이스트 전략 상품 생산 요식업체 · 대형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공략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생산돼 전국에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창 고구마 생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고창황토청정고구마 가공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14일 고창군(군수 박우정) 부안면 용산리 북부지능공단지 내 '고창황토청정고구마 가공공장'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은 고창황토고구마사업단 관계자와 가공식품회사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와 농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음식 소비형태 변화와 신선편 의식품 시장 확대, 웰빙식단 선호로 원물 형태의 고구마보다 가공을 거친 상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고구마가공품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을 진

행해왔다.

'고창황토청정고구마 가공공장'은 4,318㎡의 공장부지에 건축연면적 1,423㎡(약 430평)규모로 고구마가공을 위한 세척실, 가공실, 저온사실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고창황토청정고구마 가공공장'에서는 고구마 페이스트를 전략 상품으로 생산해 요식업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공략하고, 고구마말랭이 등 손쉽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상품군을 개발해 편의점, 대형유통매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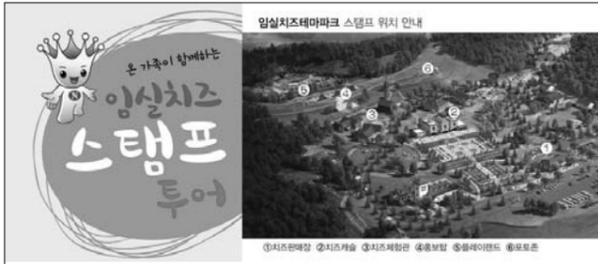
이를 통해 농가 고구마 수확 시 발생하는 20%~30%의 등외품 가공을 통한 소득 제고와 특산물 고구마의 프리미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황토청정고구마 가공공장'은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

며 고구마 가공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고창황토청정고구마협동조합, (유)고창꿀고구마 및 애뜨랑(주) 등의 원물유통업체와 원물 구입 및 출하계약을 완료했다.

가공시설이 갖춰지면 매년 20억 원 이상의 고구마 원물 구매로 지역 내 고구마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고창황토청정고구마 가공공장이 마련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창황토청정고구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박람회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스탬프 투어 실시

내일부터 가이드북 제작 · SNS공유 이벤트 등 기획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스탬프투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스탬프를 제작했으며, 투어를 즐기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린 후 임실여행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오프라인과 SNS를 넘나드는 기획으로 재미와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는 주무대는 1권역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판매장, 치즈체험관, 홍보탑, 플레이랜드, 포토존 등이며, 2권역은 임실치즈마을, 로컬푸드 판매장, 치즈체험장, 초가모정, 치즈의 문 등이다.

참여방법은 '임실치즈테마파크'(치즈판매장)와 '임실치즈마을'(로컬푸드판매장)에서 책자를 수령해 각 장소별로 비치된 스탬프를 모두 획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투어를 통해 임실치즈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추억과 학습의 장을 마련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실치즈(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마을)를 거점으로 주변관광지를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도서관 여름방학 로봇 체험전 개최

순창군립도서관이 오는 16일 토요일에 '창의과학 신나는 여름방학 로봇 체험전'을 개최한다고 밝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래 로봇시대를 맞아 어린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립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진행된다.

로봇 체험전에서는 먼저,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로봇과학교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15명이 지난 4개월 동안 갈고닦은 작품 발표회와 더불어 지도감사로부터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컴퓨터로봇센터 후원으로 인간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참여어린이가 직접 작동해 보고, 12개 체험부스에서는 축구·농구·볼링·포켓볼 경기로봇, 트레인레이서·장애물넘기·밀어내기·넵어뜨리기 로봇들을 출전시켜 각종 미션을 완성해 보는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또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자랑하는 기회도 주어지며, 특히 1미터 크기의 나뭇잎을 옮기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등 흥성한 볼거리도 제공될 계획이다.

설주원 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체험전은 아이들이 현재의 로봇기술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로봇시대에 대처 자세 등을 배우고 깨우칠 수 있는 소중한 현장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체험전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군립도서관 전화 650-5678로 문의하거나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www.sunchang.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주요 현안 보고 정례 의원총회

청사신축 ·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등 질의

제7대 후반기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 출범 후 첫 정례 의원총회가 지난 7월 14일 10시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청사 신축,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시정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의회 청사 신축건에 대해 의원별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의회사무실 등 집무공간 확보와 행정자치부의 청사 기준면적 제한에 효율적인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 설계 및 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보고건에 대해서 중국산 저가 제품 판매에 따른 관광객들의 지

역이미지 훼손과 옷칠공예·부채·칼 등 지역 전통산업 전문점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판매위주의 현재 상가 운영방식보다는 제작, 체험 등 광한루원을 찾는 100여명 관광객들의 입맛, 손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서남대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구 재단, 예수재단, 명지재단에서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구조개혁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인바 정책적으로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시민, 사회단체가 결집된 모습으로 컨설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강력하게 압박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서남대학교가 지난 1991년 영호남의

동서회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부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지역 내에서 고등교육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을 고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일 기상청 호우예보에 따라 금암부 수위조절 개방 중 발생한 인명사고 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동부 관리 지침 및 운영 매뉴얼 제정, 보 제어 방송시설 및 CCTV 등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정례 의원총회는 매일 둘째주 목요일에 집행부 주요 현안에 대해 사업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짚어 보는 회의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 성황리 열려

제13회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이 14일 양영주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장, 황숙주 군수, 김종섭 군의회 의장 등 초청인사와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특별교육은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으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회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특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희망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양영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순창의 농업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과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순창 농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난타공연 및 생활개선회 하모니카 공연이 진행돼 분위기를 북돋았다.

또 특강시간에는 김재남 강사가 "지 리더의 역할 및 즐거운 감성 소통"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농업발전을 이끄는 리더들의 역할을 재미있게 강의했다.

특히 두번째 강사로 나선 황숙주 군수는 특강시간을 통해 "우리 농업이 기후 변화, FTA 등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군은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농업의 6차산업화 등 다양한 농업 정책과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여기 모이신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순창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는 11명에게 대해 시상식도 진행했다.

한편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은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등 1,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남원소방서(서장 이흥재)는 15일 지리산 뱀사골 탐방안내소 앞에서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도의원(이상현, 강용구),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소장 안유환) 등 80여명이 모여 물놀이 위험요소 사전 차단 및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15일부터 8월 28일까지(45일간) 계속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본 응급처치와 익수자 구조기법 등의 안전교육을 받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고정배치하고 전 직원 순찰근무를 실시하는 등 물놀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농협 · 새마을회 환경정화

농협 임실군지부 지부장(최완) ·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지회장 김종수)는 지난 12일 임실군 관내 농 ·축협 임직원,과'임실군 새마을 지도자 및 회원'50여명이 2개조로 나누어 임실 '치즈마을' 및 '중동마을' 하천 쓰레기 줍기,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본 행사는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 일환으로 '농협 ·농식품부 ·행자회 ·새마을운동중앙회'간 MOU체결('16.05.03)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농촌마을 등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민 등의 관광 수요 유도 및 농촌 관광 활성화를 등을 위하여 '별 농협 전국동시 국토 대청결 운동 행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서 여성안전 특별 합동 순찰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도동지구대(대장 곽용용)는 지난 13일 도동자율방범대와 함께 관내 여성안심 귀갓길 및 근린공원 등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 합동 순찰을 실시하였다.

도동지구대에서는 최근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간담회와 문안순찰 등을 통해 여성안전 특별치안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여성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112순찰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와 협력단체와 함께 여성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펼치고 있다.

곽용용 지구대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운암면, 소공원 잡초제거

임실군 운암면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인도블럭 및 소공원 잡초제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13일 실시한 환경정비는 지난 2013년 이주단지 조성으로 설치된 인도블럭 1km 구간과 소공원 2곳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했다.

박현기 면장은 "잠자와 고온다습한 날씨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조작업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주철 상임마를 이장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마을 및 주변 환경정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암면은 전주 교교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된 옥정호 순환도로 및 봉어섬 등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